

현안과 과제

■ 나홀로 원화 강세로 수출 경기 급락 우려
- 주요 수출 산업별 영향 분석



< 요약 >

원화 가치 상승 심화













- 지난 1년간 원/엔 환율 26.1% 절상, 원/위안 환율 6.9% 절상
- 원/달러 환율 2013년 1월 15일 현재 2012년 1월 대비 8.5% 평가절상
- 엔/달러 환율 동기간 16.2% 평가절하, 위안/달러 환율 1.5% 평가절상

원화 환율 강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

- 원/엔 1% 하락 → 총수출 0.92% 감소, 원/위안 1% 하락 → 0.59% 감소

	원/엔 환율 1% 하락시	원/위안 환율 1% 하락시
총수출 감소	0.92% 감소	0.59% 감소

- 원/엔 환율 하락 → 철강, 석유화학, 기계 산업 수출 타격
- 원/위안 환율 하락 → 기계, 산업 수출 타격

	원/엔 환율 1% 하락시	원/위안 환율 1% 하락시
철강	 (1.31%)	 (0.50%)
석유화학	 (1.13%)	 (0.74%)
기계	 (0.94%)	 (1.10%)
IT	 (0.87%)	 (0.06%)
자동차	 (0.68%)	 (0.38%)
가전	 (0.46%)	 (-0.71%)

주: 1) 괄호안은 환율 1% 하락시 각 산업별 수출 감소폭을 의미
 2) 수주와 기성(수출)간의 시차가 큰 선박제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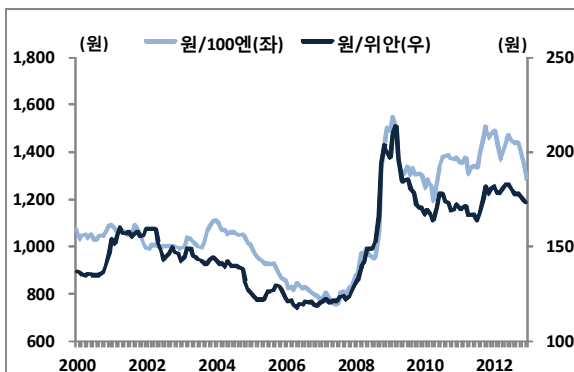
시 사 점

- 첫째,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해 원화 환율의 급격한 절상 방지
- 둘째, 미국,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응하여 한국 역시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
- 셋째,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 가치 향상, 마케팅 강화 및 품질 향상 등 가격 외적인 부문의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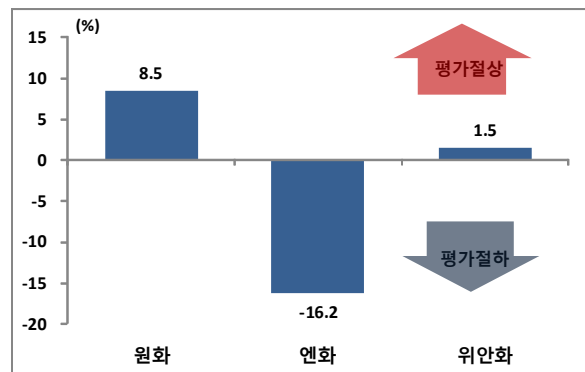
1. 최근 원화 가치 상승 심화

- 최근 원화 가치는 경우 무역수지 흑자 지속, 국내 경제 펀더멘털의 호조, 국가 신용등급 상승, 금리 동결 등으로 인해 강세 기조가 지속
 - 원/달러 환율은 2013년 1월 15일 현재 1,056원으로 전년 1월 평균 1,146원 대비 8.5% 평가절상됨
- 한편 일본 엔화의 경우 일본 아베 정권의 양적완화 확대 및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엔화 가치 하락이 심화
 - 엔/달러 환율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및 무역수지 적자가 주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13년 1월 15일 현재 89.5엔으로 2012년 1월 평균 77.0엔 대비 16.2% 평가절하됨
 - 원/달러 하락 및 엔/달러 상승으로 인해 원/엔 환율 역시 전년 1월 평균 1,489원에서 1월 15일 현재 1,181원으로 큰 폭으로 평가절상(26.1%)됨
- 위안화의 경우 달러 대비 강세이나 절상폭이 작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원/위안 환율 역시 하락하고 있음
 - 위안/달러 환율은 전년 1월 6.31위안에서 1월 15일 현재 6.23위안으로 약 1.5% 절상되었으나,
 - 원/달러 환율 절상폭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원/위안 환율은 6.9% 절상됨

< 원/달러, 원/엔 및 엔/달러 환율 추이 >



< 주요 통화 달러화 대비 평가절상·절하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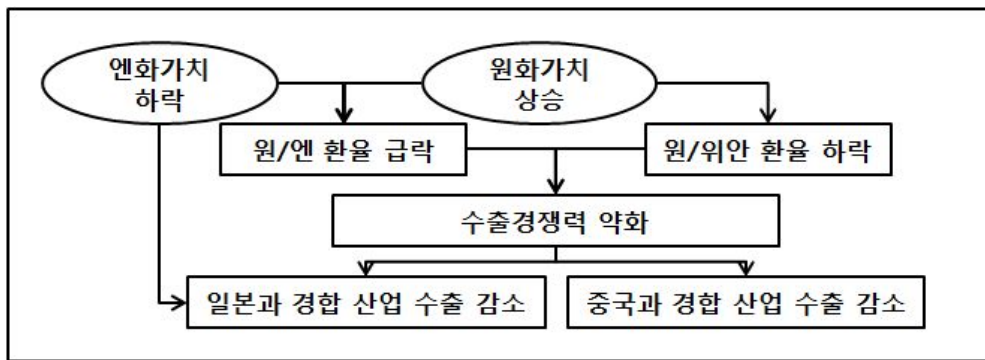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일본 재무성

주: 1) 원/달러, 원/엔 및 엔/달러 환율은 월평균 기준

2) 달러화 대비 평가절상·절하율은 2012년 1월 평균 대비 2013년 1월 15일 현재 환율로 산출

- 원화의 나홀로 강세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, 환율 변동에 따른 국내 경제의 파급영향을 분석함
-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, 중국의 원/엔 및 원/위안 환율 변동이 국내 총수출 및 주요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
- 원화 강세가 국내 총수출 및 주요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환율 및 세계경기 변수를 국내 총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
- 한국 총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원/엔 환율, 원/위안 환율 및 OECD 산업생산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시

< 원화 가치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>



2. 원화 환율 강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

1)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

- 원/엔 환율 1% 하락시 국내 총수출은 약 0.92% 감소하며, 원/위안 환율의 경우 1% 하락시 국내 총수출은 약 0.59%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
- 위안화보다 엔화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한국 산업이 중국보다는 일본과의 경쟁 정도가 더 심한 것을 시사

- 원/위안 환율 변동에 대한 추정계수보다 원/엔 환율 변동에 대한 추정계수의 값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 수출이 중국보다 일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

< 국내 총수출과 주요 변수간 회귀분석 결과 >

	원/엔 환율	원/위안 환율	OECD 산업생산
추정계수	0.92***	0.59*	8.08***

자료: 한국무역협회, 한국은행, OECD

주: 1) ***는 99%, **는 95%, *는 90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

2) 분석기간은 1999년 1분기~2012년 3분기이며,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3분기~2009년 2분기는 제외

3) 원/엔 및 원/위안 환율은 1분기 전 시차변수를 이용함













2) 수출 산업별 영향

- 수출 산업별 영향을 보면 원/엔 환율 하락시에는 철강, 석유화학, 기계 산업, 원/위안 환율 하락시에는 기계 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
- 원/엔 환율 하락시 철강, 석유화학, 기계 산업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그 다음으로는 IT 및 자동차 산업 수출이 타격을 받으며, 가전 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을 것으로 추정됨
 - 원/엔 환율이 1% 하락할 경우 일본과 수출시장 경합도가 높은 철강 1.31%, 석유화학 1.13%, 기계 0.94%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,
 - IT 및 자동차 산업 수출은 각각 0.87%, 0.68% 감소하고, 가전 산업 수출은 0.46%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
- 원/위안 환율의 경우 기계 산업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그 다음으로는 석유화학 산업으로 나타났으며, 철강, 자동차, IT, 가전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추정됨¹⁾




1) 위안화의 경우 달러화 대비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기조이나, 변동폭이 작은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원/위안 환율 역시 최근 하락세를 시현

- 원/위안 환율이 1% 하락시 상대적으로 경합도가 높은 기계, 석유화학 산업 수출이 각각 1.10%, 0.74%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,
 - 철강 0.50%, 자동차 0.38%, IT 0.06%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
- 주요 산업별로 비교해 볼 경우 일본 및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)
- 석유화학 및 기계 산업의 경우 일본과는 고부가 제품, 중국과는 범용 제품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엔화와 위안화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
 - 철강 산업의 경우 중국보다는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판단되며, IT 및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내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본 및 중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< 원/엔 및 원/위안 환율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>

	원/엔 환율	원/위안 환율
철강	 (1.31***)	 (0.50)
석유화학	 (1.13***)	 (0.74)
기계	 (0.94**)	 (1.10**)
IT	 (0.87**)	 (0.06)
자동차	 (0.68*)	 (0.38)
가전	 (0.46*)	 (-0.71*)

자료: 한국무역협회, 한국은행, OECD

- 주: 1) ***는 99%, **는 95%, *는 90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
 2) 회귀분석시 주요 변수 및 분석기간은 총수출 회귀분석과 동일
 3) 주요 산업 수출은 MTI코드 기준 석유화학 21, 철강 61, 자동차 741, 기계 71+72+73, 가전 82, IT 812+813+831+8361임
 4) 는 매우 나쁨, 는 나쁨, 는 조금 나쁨을 의미
 5) 수주와 기성(수출)간의 시차가 큰 선박제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

2) 가전 제품의 경우 원/위안 환율 하락시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국내 가전 제품의 경우 고품질, 고기술 제품으로 중국 제품과의 완전한 시장 차별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

3. 시사점

첫째,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/엔 환율의 급락을 방지

-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가치 하락과 원화 가치 상승 추세가 맞물리고 있어 원/엔 환율의 급락이 우려되는 만큼
-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미세조정 및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/엔 환율 급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

둘째, 미국,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역시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

- 미국, 일본에서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원화 가치 상승 압력이 증대
- 국내 경제 성장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 역시 적정금리 수준 및 양적완화 확대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존재

셋째,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 가치 향상, 마케팅 강화 및 품질 향상 등 가격 외적인 부분의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

- 엔화 약세 및 원화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품질 향상 및 신상품 개발 등 가격 외적인 부분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
- 특히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R&D를 통해 세계 선도 제품을 개발해 일본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**HRI**

주 원 수석연구위원 (juwon@hri.co.kr, 02-2072-6235)

조규림 선임연구원 (jogyurim@hri.co.kr, 02-2072-6240)